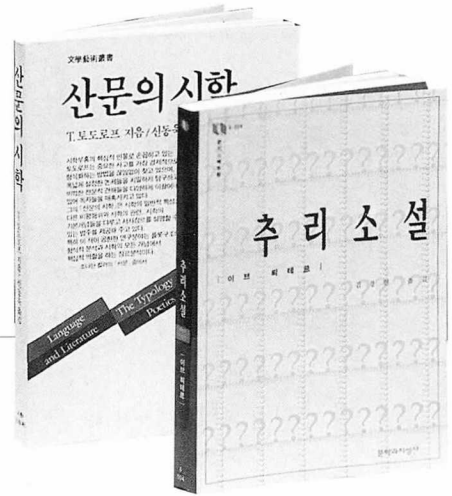


# 스토리를 낫설게 하는 형식으로서의 추리소설

〈추리소설의 유형〉과 〈추리소설〉에 나타난 추리소설 이론

고봉준 | 문학평론가



추리소설 (tale of ratiocination)이라는 용어는 영미권의 Detective story나 Mystery story, 프랑스의 Roman policier를 총칭하는 용어다. 영국의 Detective story가 주인공인 탐정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미국의 Mystery story는 범행의 주체와 방법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토도로프의 〈추리소설의 유형〉(《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은 추리소설을 대중문학으로 간주하는 문학의 오래된 통념을 공유하면서, 고전적 탐정소설을 추리소설과 동일시한다.

**장르 구조를 발견한 토도로프** 토도로프는 추리소설의 하위장르를 ‘고전적 탐정소설’ ‘스릴러’ ‘서스펜스 소설’로 분류한다. “추리소설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두 개의 스토리를 포함한다. 즉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토리가 있다”는 토도로프의 평가는 오늘날 대개의 비평가들이 공유하는 상식이 됐다. 범죄의 스토리가 ‘범죄의 발견’이라면, 조사의 스토리는 ‘살인자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다. 추리소설에서 범죄의 스토리는 ‘부재하나 실재하는 것’이고, 조사의 스토리는 ‘실재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추리소설의 결말은 언제나 사건의 재구성에 집중된다. 따라서 그의 말처럼, 추리소설에는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는 추리소설의 구성과 특징에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스토리 (fable)와 플롯 (subject)의 구별을 재발견한다. 그에게 추리소설이란 스토리가 낫설게 만들어진 형식이다.

고전적 탐정소설이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탐정의 역할을 중시했다면, 스릴러물에서는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의 수사 과정 자체가 강조된다. 토도로프는 추리소설과 스릴러물의 이런 차이를 스토리의 차이로 파악한다. 즉 추리소설과 스릴러물은 형식의 차이가 아닌 스토리의 차이(내용의 변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스펜스 소설’을 추리소설과 스릴러물의 절충적 유형으로 파악한다. 그에게 추리소설의 세 가지 유형이란 내용의 차이도 결코 형식의 차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때의 ‘형식’이란 다분히 구조주의 문학론의 ‘구조’ 개념과 유사하다. 토도로프의 유형학이 장르론적인 의미를 띠며, 나아가 ‘구조’의 발견으로 해석되는 까닭은 〈추리소설의 유형〉의 마지막 문장에서 잘 드

러난다. “새로운 장르는 옛 것의 주요한 특징들의 거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들의 혼합에 의해서이며, 첫 번째 형식과 논리적으로 조화로운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추리소설 하위장르의 특성과 토도로프의 추리소설론이 하위장르 차이에 주목한 뢰테르** 들을 ‘추리소설’이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환원시키는 반면, 이브 뢰테르의 《추리소설》(문학과지성사)은 하나의 형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하위장르들의 특성과 차이에 주목한다. 그는 추리소설을 하위 분류하는데,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는 ‘미스터리 소설’과 그 범죄에 종말을 가져오고 그 범죄자를 물리치는 ‘범죄소설’ 그리고 그 범죄 행위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서스펜스 소설’이 그것이다. 토도로프의 고전적 탐정소설에 대응되는 미스터리 소설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며, 살인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사건 해결의 과정인 두 번째 이야기를 강조한다.

한편 이중구조로 전개되는 미스터리 소설과 달리 범죄소설은 범죄의 이야기와 범인이 그 중심에 놓이며, 인지적인 유희나 인식론적인 명증성보다는 행동을 통한 감동과 동일시 효과가 전면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독자들의 동일시 대상인 희생자는 필수적인 등장인물이며, 이야기의 결말은 신체적인 징벌로 마무리된다. 미스터리소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닫힌 세계를 보여준다면, 범죄소설은 그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열린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뢰테르의 논의 속에서도 제3의 하위 장르인 서스펜스 소설은 여전히 절충적이고 변형적인 장르로 취급된다. 독자들의 동일시를 통한 지속적인 긴장과 빈번한 심리묘사, 시간적인 암시들의 빈번한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서스펜스소설은 비평가들 사이에 상이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진행형의 모델이다. 이처럼 뢰테르의 《추리소설》은 추리소설의 하위장르들이 지닌 개별성을 철저히 인정함은 물론 그것들 각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의 논의에 필수적인 저작이다. ■

고봉준씨는 경희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2000년 《대한매일》 신춘문에 평론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문학평론가, 수유연구실+연구공간 '너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